

## 민간자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모금동원 모형개발과 배분영역 탐색

고 경 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 20여년간 사회복지제도가 확충되고 성숙되면서 우리의 공공복지지출 증가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공공재정의 증가압력을 보완하고 사회변화와 혁신을 위해 민간재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모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석을 통해 모금기관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결과, 첫째, 민간모금 요인으로 조직력이 모든 모델에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이는 자원동원에 민간모금기관의 후원개발 노력이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준다. 즉, 모금담당 부서나 인력, 혹은 겸직을 통해 모금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으면 민간모금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원자를 모집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후원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후원자 관리는 이들의 유지와 새로운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민간모금동원 결정모형은  $\ln \hat{Y} = 11.16 + 0.39 \times \ln X_1 + 1.09 \times \ln X_2$  로 분석되었다. 모금액( $\hat{Y}$ )이 1% 증가하기 위해, 종사자수( $X_1$ )는 0.39%, 모금전담인력수( $X_2$ )는 1.09% 각각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금 및 후원금과 개인회비가 1% 증가할 경우, 배분액은 노인 영역이 0.83%, 가족영역 0.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모금과 배분간 관련성이 약한 우리의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둘 간 관계분석에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주요용어: 사회복지지출, 민간자원, 민간모금기관, 민간모금동원, 모형개발, 배분영역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보건복지부 수탁과제인 '2013년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에 수집된 전국민간모금기관 조사자료임.

■ 투고일: 2015.10.30 ■ 수정일: 2015.12.8 ■ 게재확정일: 2015.12.9

## I.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의 성숙과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그리고 저성장 사회로 진행되어 사회복지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사회재정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자발적 민간부문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다. 이는 여러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때 보다 풍부한 사회복지 제공이 가능하다는 복지다원주의와 연결된다(고경환 등, 2009). 최근 스웨덴, 독일, 미국 등의 국가에서도 복지개혁 이후 기업, 민간모금기관 등이 복지재정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1990년 이래 공공복지지출이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국가의 경우 자발적 민간지출이 증가하여 이를 보충하고 있었다.

복지재정에는 공공재원뿐만 아니라 자발적 민간자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민간자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민간자원에는 후원금, 후원물품, 이용료 수입 등의 물적 자원과 자원봉사자를 포함하는 인적자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적 자원, 그 중에서도 모금과 후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모금과 후원을 통한 민간자원 동원은 필요한 복지욕구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비영리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본연의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경환, 조용복, 박을중, 강지원, 최성용, 2009).

하지만 우리는 민간자원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지 못 한 탓에 민간모금 활동이 미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등록된 전체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중 민간자원 개발 전담 인력을 두거나 전담부서가 있는 기관은 30%에 불과하다(고경환 등, 2013). 즉, 민간모금에 대한 전문지식이 낮고, 종사인력의 부족 등 구조적으로 민간자원을 개발하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민간자원 개발의 주체는 모금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중 배분활동까지 겸하는 민간모금기관이다. 즉 민간모금기관이 다른 민간비영리조직과 구별되는 점은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해당 조직의 사업에 재원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비영리조직 혹은 비영리활동에도 배분한다는 점이다(김가을, 조상미, 2014).

아울러 민간모금기관은 모금활동을 통해 민간으로부터 사회복지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재분배함으로써 정부의 복지재정 부담을 줄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의 모금

기관은 1990년대 후반부터 자율적 모금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성장하였다(김가을, 조상미, 2014). 하지만 2012년 민간자원의 총량인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은 163.9조원으로 이중 민간모금기관은 7.5%에 그치고 있다(고경환 등, 2013). 또한 현재 우리 사회의 민간 후원 및 기부수준은 서구에 비해 낮고, 법인보다 개인에 의존하는 형편이며<sup>1)</sup>, 과거에 비해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사회적 가치창출이나 혁신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기부문화가 조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원인은 사회 전반의 민간모금에 대한 소극적 인식, 모금기관의 수동적이고 비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모금홍보나 전략체계, 그리고 취약한 제도 인프라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먼저 민간모금기관들의 모금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다음 모금기관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민간모금동원의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모금기관들이 기관운영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조직역사, 모금전담인력, 모금 겸무인력, 후원자 관리, 모금액 배분 등의 조직특성이 민간모금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끝으로 분석 자료의 한계는 있지만 모금기관이 갖는 또 다른 역할인 배분영역까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민간모금기관은 사회의 잠재적 자원을 발굴 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후원 활성화를 위한 국민들의 참여 유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 기부금은 개인 63%, 법인 37%임(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4). 참고로 기부금에는 세법상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종교적 헌금(십일조, 보시), 정치후원금, 노조비 등을 포함.

##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 1. 민간자원의 개념

민간자원은 기관의 생존 유지, 성장, 목적달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민간자원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은 매우 다양하며, 그 중 속성을 기준으로 할 때는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으로 분류된다. 물적자원이란 정부의 보조금,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금(현금, 부동산, 증권, 물품 등), 서비스이용료(의료, 상담, 교육 등) 등의 현금이나 현물이며, 인적자원은 시설 종사자와 자원봉사인력 등의 인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모금에 관심을 두어 사회복지자원 중 물적 자원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공공자원이 조세를 근간으로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자원인데 반해, 민간자원은 개인, 기업, 법인, 단체 등이 민간의 기부나 후원, 혹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의 지불 등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복지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제공된다. 이 때 민간자원은 직접적으로 기관에 전달되기도 하고, 민간모금조직을 거쳐 모집, 배분되기도 한다. 즉, 민간모금조직은 시민의 자발성에 기초해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불특정 다수의 공익향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태규, 손원익, 김진, 2011).

민간자원을 동원하는 대표적 방식은 모금이며 크게 연중모금(annual funding), 자본모금(capital funding), 프로포절 제출을 통한 교부금(grants) 확보로 구분되며, 연중모금은 다시 재산(estate)기부, 자본/거액(capital/major)기부, 소액(annual gift)기부로 구분된다(Grasty & Sheinkopf, 1982). 자본모금은 민간모금조직의 자산증식을 위한 기법으로 연중모금에 비해 기부금 액수가 크고, 일정기간에 집중 모금하는 형태를 띤다(신준섭, 최은미, 2004). 교부금은 정부나 기업 혹은 사회단체가 특정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수행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가 실행되면서 교부금확보 형태가 활성화되어 가는 추세로(김형식, 이영철, 신준섭, 2001) 현재는 그 역할이 더 두드러진다.

민간재원확보를 위한 또 다른 형태인 후원은 재단지원금, 협찬후원금, 직접적인 기부, 유산, 종교기부금 등이 포함된다(정무성, 2000). 후원의 종류에는 현금(후원금)과 현물(후원물품)이 있는데, 후원금은 후원물품과 비교하여 시설에서 융통성 있게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후원은 사용처에 따라 결연후원과 시설후원으로 분류된다. 결연후원은 후원자가 특정한 대상을 지정하여 하는 후원이고, 시설후원은 특정인을 지목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후원을 말한다(김영중, 2002). 모금과 후원은 모두 재원 제공자의 경제적 여건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후원자 개발 및 유지에 조직의 자원 소모를 요한다(김영중, 2002).

지금까지 민간자원의 분류, 종류, 형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모금동원에 초점을 두는 만큼 이들의 개념을 포괄하여 민간자원을 사회적 위험과 사회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유형의 물적자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민간모금에 관한 선행연구

비영리조직의 자원동원은 조직의 목표달성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또한 민간모금조직을 포함한 비영리조직은 더 이상 조직 활동을 위한 재원을 국가에게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Vazquez, Alvarez & Santos, 2001; 김미숙 등, 2005). 즉, 비영리조직은 외부 자원 제공자와 복잡한 협상을 치러야 그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Ebaugh, Chafetz, & Pipes, 2005; Gronbjerg, 1993; Hughes & Luksetich, 2004; Powell & Minkoff, 2006). 동시에 후원행위는 일방적인 선행에서 후원자와 모금조직 간의 교환의 과정(Kotler & Andreasen, 1987)으로 변화되었다. 후원자는 후원행위를 통해 기쁨, 보람과 같은 심리적 보상을 받는다. 그리고 후원자는 이러한 보상을 받기 위해 좀 더 공신력 있고 신뢰성 있는 모금조직에 더 많은 후원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신준섭, 최은미, 2004). 또한 이러한 심리적 보상의 교환을 넘어 가치있는 사회적 이슈나 혁신에 투자하는 투자후원의 개념으로 확장되는 논의도 형성되고 있다.

기존 연구는 대체로 기부자의 인구학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측면에서 기부행위를 촉진시키는 요인들을 파악하거나 마케팅 측면에서 자원모금활동을 연구하는데 집중되었다(권혁인, 주희엽, 나운빈, 2012). 본 연구는 민간모금기관들을 대상으로 민간모금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조직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비영리조직의 민간모금활동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사회복지분야를 대상으로 조직 특성이 이들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왔다(김미숙, 김은정, 2005; 노연희, 2006; 신준섭,

최은미, 2004; 황성철, 2000). 외국의 연구들 중에서도 자원동원활동과 관련한 비영리 조직특성이 모금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Frumkin & Kim, 2001; Gronbjerg, 1993; Hager, Rooney & Pollak, 2002; Stone, Hager & Griffin, 2001). 선행연구에서 사회복지기관의 민간모금의 성과 연구는 공통적으로 후원금이었고, 김미숙, 김은정(2005)과 신준섭, 최은미(2004)는 후원자의 수를 노연희(2006)는 담당자의 주관적 민간모금 성과 평가 결과를 추가적인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의 경우에는 소재지 수준, 조직 운영기간, 직원 수, 기관유형 등 기관의 일반적 특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었으며, 추가적으로 김미숙과 김은정(2005), 노연희(2006), 신준섭과 최은미(2004), Frumkin과 Kim(2001), Stone, Hager와 Griffin(2001)은 자원활동 관련 요인으로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유무, 구체적 후원관련 운영 및 전략 등의 변수를 추가하였다. 황성철(2000)은 추가적 변수로 전체 조직 운영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비영리조직의 민간모금 전략 및 기법은 영리조직의 마케팅 활동에 비견된다(이동영, 변은지, 2007; 정무성, 2000). Kotler(1985)는 비영리조직의 자원개발을 위한 마케팅 과정을 후원자 및 기부자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나 가치를 교환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영리조직들은 시장세분화, 관계 마케팅, 이미지 구축 등의 마케팅 활동을 폭넓게 활용하였다(Venable, Rose, Vush & Gilbert, 2005). 정무성(2000)은 사회복지기관의 후원 개발에 초점을 둔 마케팅 전략을 후원자 개발 가능성의 분석, 시장조사, 마케팅 목표 설정, 시장세분화 및 표적시장 선정, 후원자개발 프로그램 수립, 그리고 마케팅 실행으로 나누어 자세히 기술하였고, 구체적 자원개발 기법으로 DM, 이벤트, 대중매체 광고, ARS, 컴퓨터 통신, CRM 등을 소개하였다. 이동영과 변은지(2007)는 비영리조직의 마케팅활동에 이들이 갖는 브랜드 자산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밝혀냈다. 나아가 권혁인, 주희엽, 나윤빈(2012)은 모금 확장을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모금활동 및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연구는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통해 법제도 개선, 인력양성, R&D, 기반조성, 기부문화 요인으로 분류하여 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렇듯 비영리조직이 민간모금을 위해 기관이 실시해야하는 전략 및 기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모금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사회복지조직이 소재한 지역과 입지여건의 경우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일수록, 저소득층보다는 일반지역에서 후원금 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황성철, 2000; 신준섭, 최은미, 2004;

김미숙, 김은정, 2005). 둘째, 직원 수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인력의 숫자는 후원금 모집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미숙, 김은정, 2005; 노연희, 2006). 셋째, 조직의 역사가 길수록, 운영기간이 오래될수록 민간모금 활동이 활발하였다(황성철, 2000; 김미숙, 김은정, 2005; Stone, Hager & Griffin, 2001; Gronbjerg, 1993). 마지막으로 후원자에 대한 전산관리, 후원자 유지 혹은 개발관련 업무에 비용을 많이 들이거나 전담부서를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간모금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는 기관이 자원동원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김미숙, 김은정, 2005; 노연희, 2006; 신준섭, 최은미, 2004; rumkin & Kim, 2001; Stone, Hager & Griffin,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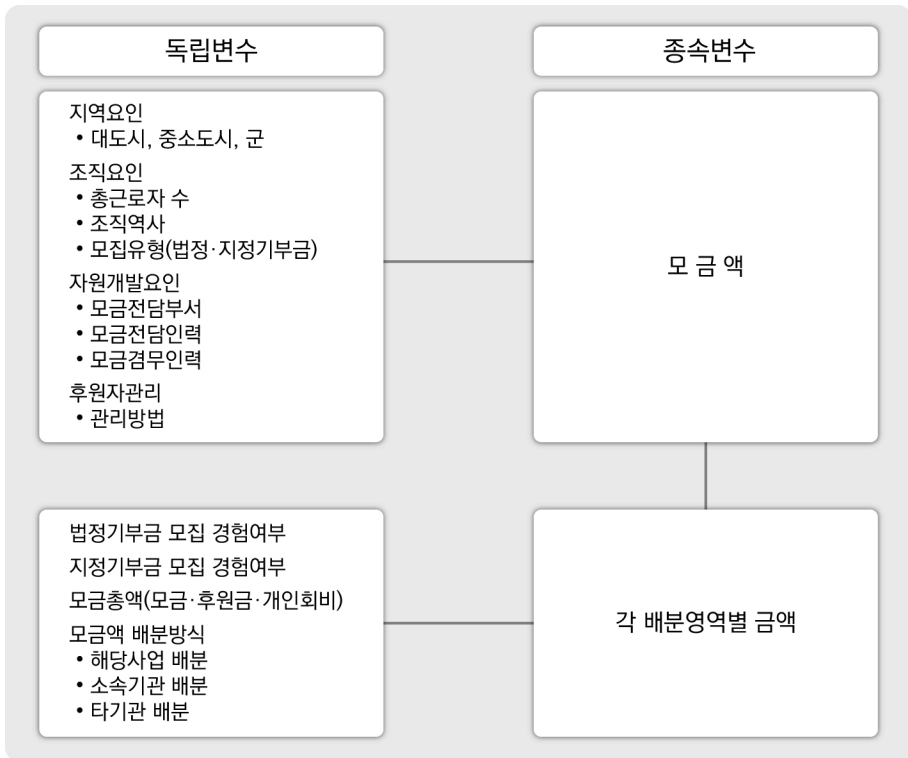
본 연구는 사회복지기관의 민간모금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특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토대로 지역요인, 조직요인 그리고 자원개발요인을 주요 요인으로 설정한다. 특히, 자원개발요인에 해당하는 기관 내 자원개발관련 부서 및 전담인력 자원, 후원자 관리 체계의 존재 여부 등은 체계적인 민간모금활동의 운영 및 관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후원자관리는 민간모금 운영 및 관리의 구체적 실천 행위이기에 중요 변수로 선정한다. 즉, 민간자원 개발을 위해 전담부서 유무와 어느 정도 인력을 가지는지, 후원자 관리 체계가 있는지 여부가 민간자원 동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민간모금단체들은 모금할 때 모금의 취지와 목적을 알림으로써 궁극에는 배분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당기의 배분 투명성은 결국 차기 모금과도 연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민간모금기관의 모금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 2) 민간모금기관의 민간모금동원 모형은 어떤 요인들로 결정되는가?
- 3) 모금과 배분간 일정한 관계가 있는가? 있다면 세부영역과 그 정도는 어떠한가?

### 3. 분석틀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민간모금 동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종합하여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배분영역의 결정요인을 탐색한다. 이러한 분석틀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분석 틀





### Ⅲ. 연구방법

#### 1. 변수의 측정

#####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모금액과 후원금으로 측정하였다. 모금기관의 지난 2013년 1년동안의 실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후원액은 결연후원액과 시설후원액의 합이다. 또한 모금액의 배분영역과의 관련성을 탐색하여 본다.

##### 나.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지역요인, 조직요인, 자원개발요인, 그리고 후원자관리로 구분된다.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요인에는 시설소재지가 포함된다. 시설소재지는 dummy 변수로 만들어 대도시를 1로 하고, 중소도시 및 군 지역을 준거 집단으로 하여 0의 값을 주었다.

둘째, 조직요인은 조직특성, 모집유형, 그리고 배분유형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조직 특성을 세부적으로 보면 조직규모는 정규직원과 계약직 직원을 합한 총수를 말한다. 직원 수가 많을수록 민간모금에 대한 성과가 높다는 기존연구를 토대로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직원 수의 분포가 시설마다 다양하여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아 이를 자연로그화하여 정규분포를 만들었다. 조직역사는 시설 초기 설립연도부터 지금까지의 운영기간 년수이다. 운영기간이 길수록 기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제고되고, 기관 나름 대로의 민간모금 전략을 갖고 있어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다음 모집유형으로는 법률 적으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어 분류하여 살펴본다. 배분유형은 모금액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세부영역으로 배분되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자원개발요인에는 모금전담부서·모금전담인력·모금점무인력 유무가 포함된다. 모금전담인력이 있는 곳이나 겸직을 하고 있는 조직이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민간모금이 활발하다는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전담인력이 자원개발가능성을 높인다는 가정아래 전담인력 유무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한편, 후원자 관리는 모금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후원자 관리 방법이다. 후원관리 프로그램은 기존 후원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소식지나 우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또한 신규후원자나 우수 후원자에 대한 개별관리도 할 수 있어 민간모금활동의 결과가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다.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후원자 관리가 민간모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표 1. 주요변수 측정방법(횡단자료, 종단자료 3년간)

구분	변수	측정 방법
중속변수	모금액	총모금액
독립변수		모금(후원)액+개인회비, 모금액+개인회비 0인 경우 제외
1. 지역요인	기관소재지	기관위치
		대도시=1 중소도시=2 군=3
2. 조직요인	조직특성	조직규모 조직역사 (통제변수) 기부금단체 지정기간 조직관리 유형
		총근로자 수(정규직+임시직), 총근로자 수 0인 경우 제외 조직설립 기간(2014- 설립년도) 2014-지정년도 정규직 비율(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100 비정규직비율(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100 모금액비율(모금액+개인회비)/전체수입*100 운영비지출비율(운영비/전체지출*100)
	모집유형	대안적 수입원 비율 법인지원비율 법인지원비율
	배분유형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법인사업 소속기관(사업체) 타기관 특정개인 기타
3. 자원개발요인	조직력	모금전담부서 모금전담인력 모금겸무인력 동원인력
		유=1, 무=0 유=1 (명), 무=0 유=1 (명), 무=0 전담인력(명) 구간 검토 겸무인력(명)
4. 후원자 관리	관리방법	1.영수증 발급, 2.감사편지, 3.모금내용 공고, 4.사용내역 공고, 5.감사패 증정 등, 6.모금캠페인, 7.모금행사, 8.기타

## 2. 조사대상

### 가. 조사대상

본 조사의 대상은 정부가 승인한 전국의 모금기관과 기부금품 모집등록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모금기관과 기부금 단체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전문·법정·특례모금기관 및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그리고 기부금품모집등록기관이다. 각 민간모금단체(기관)의 개념과 관련법은 <표 2>와 같다.

표 2. 민간모금단체(기관) 유형과 기관

기관유형	개념	근거법	관리주체	기관 예시
전문/법정/특례 지정기부금 단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며 주무관청(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지정 요건을 갖춘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 1항 제 1호	주무관청, 기획재정부	굿네이버스, 아름다운재단,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여성재단,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 요건을 갖춘 단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 80조 제 1항 제 5호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한국어린이난치병협회,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등
기부금품 모집기관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하는 기관	기부금품 모집법	행정자치부	월드비전,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회, 어린이재단, 전국재해구호협회, 한국여성재단 등

자료: 행정자치부(2012.1).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조사대상 기관(모집단) 764개소의 모금기관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문/법정/특례모금기관 및 지정기부금단체가 592개(77.5%)로 가장 많고,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126개(16.5%) 그리고 기부금품모집기관이 46개(6.0%)로 나타났다. 이상의 민간모금기관 및 기부금모집등록단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3. 민간모금단체 유형별 기관수(2013년말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유형		
		전문/법정/특례모금기관 및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기부금품모집기관
계	764	592	126	46
비율	100.0	77.5	16.5	6.0

주: 조사 설계 단계에서는 전국민간모금기관이 838개소였으나 실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와 관련 없는 기부금 단체 50개소, 미등록기관 7개소, 실제 모금활동을 하지 않는 기관 6개소, 중복 5개소, 기타 전화불통 4개소, 폐쇄 2개소가 조사에서 제외됨.

자료: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4.

## 나. 조사내용

민간모금기관(단체)실태조사를 위해 개발된 조사표는 크게 일반사항과 수입조사, 그리고 지출조사로 이루어져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사항(I. 일반사항)에서는 민간모금기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인 기관명과 설립일자, 모집등록기간, 기부금모집 내용, 종사자수, 전담부서와 인력 수, 후원자관리 내용 등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민간모금기관(단체) 세입조사(II. 세입조사표)는 크게 정부지원금과 법인전입금, 모금 및 후원금 내역, 잡수익 그리고 이월금 등의 다섯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재원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지원금은 국비, 지방비, 복권기금 등으로 구분되며, 법인전입금은 법인지원금, (기독교)예당의 지원금과 (천주교 등)교구의 지원금, (불교 등)종단본부의 지원금으로 구성되었다. 모금 및 후원금은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의 후원금으로 구성된다. 잡수익은 불용품의 매각대나 예금이자의 수입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민간모금기관(단체)의 지출(III. 지출조사표)은 시설 운영비와 복지프로그램 사업비, 타기관 후원, 적립금, 그리고 이월금 등으로 구성된다. 시설운영비는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기타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사업비는 노인, 유족, 장애, 보건의료, 가족, 주거,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을 운용할 때 지출되는 금액이다.

## 다. 조사방법

본 조사는 우편으로 조사표를 배포하였으며, 사전 훈련된 전화조사원에 의해 3차로 조사되었다. 먼저 1차는 조사대상기관에 조사표를 배포하고 전화조사원이 각 민간모금 기관(단체)에 조사표 도착확인 및 조사표 작성독려와 회송요청을 하였다. 다음으로 2차 조사는 조사표가 각 기관(단체)에 도착한 이후 작성시작부터 실시하였으며 조사표 작성 독려와 작성의 질의와 응답, 그리고 회송요청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 조사는 조사표 미회송 기관(단체)을 대상으로 조사표 작성과 회송요청을 실시하였다. 응답조사 표의 회송은 대부분 전자메일을 활용하였으며, 일부 팩스와 우편 등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2014년 5월 14일부터 7월 11일까지 총 62일간 조사가 실시되었다.

## 라. 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 기관 764개소 중 응답완료 548개소, 부분조사 완료 75개소, 무응답기관은 141개소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모집단의 조사 응답율은 71.7%이다.

표 4. 민간모금단체(기관) 응답 및 회수율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유형		
		전문/법정/특례모금기관 및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기부금품 모집기관
조사기관(A)	764	592	126	46
응답기관(B)	548	434	78	36
조사표회수(B/A*100)	71.7	73.3	61.9	78.3

주. 완료조사 548개소, 부분완료조사 75개소

표 5. 연차별 민간모금단체(기관) 수와 회수율

구분	(단위: 개소, %)		
	2011	2012	2013
조사기관(A)	768	751	764
응답기관(B)	572	641	548
조사표회수(B/A*100)	74.5	85.4	71.7

## IV. 연구분석

### 1. 횡단자료(2013)을 이용한 모형의 도출

<표 6>은 민간모금 2013년 자료를 사용하여, 모금액과 개인회비를 종속변수로 OLS(ordinary least squares) 분석 결과이다. 먼저, Model 1에는 주요독립변수 중 총근로자수의 자연로그 값, 모금전담인력수의 자연로그 값을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총 분석대상은 456개의 기관이며 결정계수는 0.314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변수들은 모두 0.1% 수준에서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총근로자수와 모금전담인력의 자연로그 값이 1 증가할 경우 모금액과 개인회비의 자연로그 값은 각각 0.399, 1.09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Model 2에는 주요독립변수인 총근로자수의 자연로그 값, 모금전담인력수의 자연로그 값, 모금겸무인력수의 자연로그 값만을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총 분석대상은 454개의 기관이며 결정계수는 0.35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요독립변수들은 모두 0.1% 수준에서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총근로자수의 자연로그 값이 1 증가할 경우 모금액과 개인회비의 자연로그 값은 0.32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금전담인력 수와 모금겸무인력수의 자연로그 값이 1 증가할 경우 모금액과 개인회비의 자연로그 값은 각각 1.262, 0.89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Model 3에서는 Model 1에서 기관이 위치하는 지역(서울, 광역시·시·제주, 군), 지출특성, 설립기간을 통제변수로 추가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총 분석대상은 449개의 기관이며 결정계수는 0.455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주요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은 거의

동일하였다. 구체적으로 총근로자 수, 모금전담인력 수, 모금점무인력수의 자연로그 값이 1 증가할 경우 모금액과 개인회비의 자연로그 값은 각각 0.290, 1.121, 0.8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들의 분석결과는 먼저, 서울에 위치하는 시설에 비하여 광역시·시·제주에 위치하는 시설의 모금액과 개인회비의 자연로그 값이 1.336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그리고 서울에 위치하는 시설에 비하여 군 지역에 위치하는 시설의 모금액과 개인회비의 자연로그 값은 1.263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차이는 10% 수준에서 한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기관의 배분형태에 대한 터미변수들은 모델의 설명력을 집합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않았다( $p = 0.950$ ).

마지막으로, Model 4에서는 Model 3에 더해서 모금전담인력 및 모금점무인력이 모금액과 개인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개변수로서 후원자관리에 대한 터미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총 분석대상은 449개 기관이며 결정계수는 0.513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총근로자수의 자연로그 값의 회귀계수는 Model 2와 거의 동일하고 Model 3보다는 더 증가하였으며, 모금전담인력수와 모금점무인력수의 자연로그 값의 회귀계수는 Model 3이 Model 2보다 더 감소하였다. 이것은 후원자관리가 모금인력의 매개변수로서 역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후원자관리들의 터미변수들은 모델의 설명력을 집합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표 6. 회귀분석 결과 주요모델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자원개발								
ln총근로자 수	0.399***	0.092	0.328***	0.089	0.290**	0.092	0.320***	0.089
ln모금전담인력 수	1.092***	0.149	1.262***	0.148	1.121***	0.134	0.811***	0.127
ln모금겸무인력 수			0.899***	0.185	0.820***	0.166	0.712***	0.170
지역 <sup>1)</sup>								
시지역					-1.336***	0.147	-1.297***	0.143
군지역					-1.263+	0.709	-1.323+	0.723
배분형태								
법인사업					0.194	0.294	0.027	0.274
소속사업체					0.032	0.186	-0.002	0.181
타기관					0.127	0.249	0.135	0.244
특정개인					-0.134	0.377	-0.248	0.353
기타					0.266	0.389	0.081	0.351
조직역사					0.002	0.007	0.003	0.006
후원자 관리								
영수증 발급							-0.944	0.978
감사편지							0.173	0.195
모금내용 공고							0.406+	0.208
사용내역 공고							0.097	0.160
감사패 증정 등							0.264+	0.146
모금캠페인							0.670***	0.158
모금행사							0.010	0.165
기타							0.254	0.320
상수항	11.162***	0.137	10.585***	0.175	11.054***	0.337	11.410***	1.003
R <sup>2</sup>	0.314		0.350		0.455		0.513	
N	456		454		449		449	

주: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

1) 지역에서 시지역, 군지역의 기준더미변수는 서울임.

연구문제1) ‘민간모금기관의 모금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자원개발, 지역, 그리고 후원자 관리로 정리된다.



## 2. 종단자료를 이용한 특성분석

### 가. 고정효과모델 분석

<표 7>은 모금액과 개인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찰되지 않는 기관들의 개별적인 고정특성들을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fixed-effect) 모델로 분석한 결과이다. 독립변수는 주요독립변수와 조사년도더미만을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총근로자수의 자연로그 값의 영향만이 10% 수준에서 한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수들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기관들의 관찰되지 않는 고정특성요인들에 대해 고정효과모델로 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7. 고정효과모델(2011-2013년도 자료 사용)

	회귀계수	표준오차
ln총근로자 수	0.216+	0.123
ln모금전담인력 수	-0.149	0.157
ln모금겸무인력 수	-0.004	0.128
y12	0.017	0.094
y13	-0.150	0.099
상수항	11.972***	0.223
관찰 수	1,009	

주: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

### 나. 시간적 영향 분석

<표 8>은 총근로자 수와 모금 고용자 수의 시간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전년도와 현년도의 고용자수를 독립변수로 분석하였다. 즉 전·현년도 총근로자 수, 모금전담인력 수, 모금겸무인력 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모금액과 개인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전년도 변수들은 집합적으로 모델의 설명력을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않았다( $p = 0.634$ ). 따라서 현년도 총근로자 수, 모금전담인력 수, 모금겸무인력 수로 분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표 8. 전년도 고용자수 통제(2012-2013년도 자료 사용)

	회귀계수	표준오차
ln총근로자 수_13	0.372	0.236
ln모금전담인력 수_13	0.731+	0.399
ln모금겸무인력 수_13	0.594+	0.323
ln총근로자 수_12	-0.060	0.234
ln모금전담인력 수_12	0.513	0.407
ln모금겸무인력 수_12	0.269	0.313
상수항	10.742***	0.201
R <sup>2</sup>		0.382
N		340

주: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

### 3. 민간모금동원 모형개발

민간모금동원 모형은 아래의 회귀방정식을 통해 도출해 보고자 한다.

$$Y = \beta_0 + \beta_1 X_1 + \dots + \beta_r X_r + e$$

$Y$  : 모금 및 후원 금액(천원)

$X_i$  :  $r$ 개의 설명변수

$\beta_i$  : 회귀계수

$e$  : 오차항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회귀모델의 이분산성은 Breusch-Pagan test를 통해서 검증한 결과, 이분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이분산성을 통제하기 위해 로버스트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하여 회귀모델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의 ‘민간모금동원 모형은 다음과 같다.

$$\ln \hat{Y} = 11.16 + 0.39 \times \ln X_1 + 1.09 \times \ln X_2$$

$\hat{Y}$  = 모금 및 후원금액(천원)

$X_1$  = 전체근로자 수

$X_2$  = 모금전담인력 수

$R^2 = 0.314$

민간모금동원 모형은 전체근로자 수와 모금전담인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배분영역 결정의 탐색 분석

모금기관들은 배분영역을 결정할 때 어떠한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는지 탐색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자료에서는 모금기관들의 배분영역을 총 12개 범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각 범주는 노인, 유족, 장애, 보건의료, 가족·청소년·아동·한부모, 주거, 해외, 북한, 자활·부랑인·간급구호, 홍보, 연구, 기타이다. 배분유형과 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특성변수로는 지난 1년간(1.1~12.31) 법정기부금 모집 경험여부, 지정기부금 모집 경험여부, 모금한 후원금 지출방식(중복체크 가능한 5개 문항), 모금총액<sup>2)</sup>을 사용하였다(표 9 참조).

표 9. 배분영역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

구분	변수	측정방법
종속변수		
각 배분영역별 금액	1년 간(1.1~12.31)의 각 배분 영역별 금액	ln(각 배분영역별 금액)
독립변수		
법정기부금 모집 경험여부	1년 간(1.1~12.31) 법정기부금 모집 경험여부	0=없음, 1=있음.
지정기부금 모집 경험여부	1년 간(1.1~12.31) 지정기부금 모집 경험여부	0=없음, 1=있음.
모금액의 배분방식	모금액의 배분방식(5개 문항, 중복체크 가능) 다섯 개의 더미변수로 구성.	1) 해당 사업에 직접 지출 0=아니오, 1=예 2) 해당 소속 기관에 지출 0=아니오, 1=예 3) 타 기관에 지출 0=아니오, 1=예 4) 특정개인을 대상으로 지출 0=아니오, 1=예 5) 기타 0=아니오, 1=예
모금 및 후원금과 개인회비의 합	1년 간(1.1~12.31) 모금 및 후원금과 개인회비의 총액	ln(모금 및 후원금과 개인회비+1)

2) 이는 모금액, 후원금, 그리고 개인회비의 합으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모금기관들은 12개의 사업 중 몇 가지 영역에 걸쳐 배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중복배분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과정에서 개별사업단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할 경우, 해당 기관의 특성과 다른 사업배분과의 관련성이 혼잡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실제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2개 배분사업 중 오직 한 가지 유형에만 배분하는 기관들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배분에 대한 분석에는 통계적 어려움이 많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각 유형에만 배분하는 기관들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규분포로의 근사를 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배분에 대한 분석은 개괄적이며 탐색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었다. 먼저 <표 10>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모집 경험여부와 조사자료에서 각 단일 영역에만 사업비를 배분하는 기관들의 교차표이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법정기부금 모집 경험은 낮고(12.8%), 지정기부금 모집 경험이 높음(86.7%)을 알 수 있다.

표 10. 각 배분영역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모집여부별 모금기관 분포현황

배분 영역	법정기부 모집 경험여부			지정기부 모집 경험여부		
	있음	없음	계	있음	없음	계
노인	3	14	17	15	1	16
유족	0	1	1	1	0	1
장애	7	24	31	27	4	31
보건의료	1	17	18	16	2	18
가족·청소년·아동·한부모	9	69	78	62	16	78
주거	1	6	7	7	0	7
해외	1	15	16	15	1	16
북한	0	1	1	1	0	1
자활, 부랑인, 긴급구호	4	24	28	24	4	28
홍보	1	6	7	7	0	7
연구	1	3	4	4	0	4
기타	1	17	18	16	2	18
계	29	197	226	195	30	225

다음으로 앞의 <표 9>에 제시된 변수구성에 따라 12개 배분영역별로 OLS 분석을 하였다. 각 모델별 분석기관의 수가 낮지만 2개 배분영역, 즉 노인과 가족·청소년·아동·한부모에 대한 모델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F < 0.05$ ). 분석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유의미한 두 배분영역(노인, 가족·청소년·아동·한부모)의 분석결과

종속변수 ln(각 유형별 사업비 지출액)	Model 2 (노인)		Model 4 (가족·청소년·아동·한부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법정기부금 모집 경험여부	4.355***	0.812	-0.563	0.694
지정기부금 모집 경험여부	-0.377	1.024	0.969	0.551
모금액 배분방식				
운영 사업에 직접 지출	-1.808*	0.725	0.608	1.029
소속기관에 지출	-0.738	0.576	-0.437	0.511
타 기관에 지출	0.662	1.099	2.626*	1.099
특정개인을 대상으로 지출	0.517	1.146	0.474	1.028
기타	(omitted)		1.731	1.039
ln(모금 및 후원금과 개인회비)	0.833**	0.183	0.397***	0.093
상수항	3.592	2.358	5.477***	1.496
R <sup>2</sup>	0.913*		0.289*	
N	16		78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이 두 모델의 분석대상 수가 적어 정규분포 보장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분산성을 통제한 분석을 하지 않아 이분산성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탐색적 관점에서 분석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먼저, 노인 분야에만 배분하는 기관들은 법정기부금 모집 경험여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배분액이  $\exp(4.355)=78$ 배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해당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에 직접 배분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배분액이  $\exp(-1.808)=0.16$ 배로 작게 나타났다. 모금 및 후원금과 개인회비가 1% 증가할 경우, 노인영역의 배분은 0.8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결정계수는 0.913이었다.

다음 가족·청소년·아동·한부모 영역에 배분하는 기관들은 ‘해당 법인/단체와 관련 없는 타 기관 및 사업체에 배분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배분액이  $\exp(2.626)=13.8$ 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모금 및 후원금과 개인회비가 1% 증가할 경우, 가족·청소년·아동·한부모 영역의 배분액은 0.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결정계수는 0.289이었다.

연구문제 3) ‘모금과 배분간 일정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 분석결과 12개 영역 중 2개 영역(노인영역과 가족영역)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배분액은 ‘법정기부금

모집 경험여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더 높고, '운영 법안보다 '타 기관 배분'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모금기관들은 타기관 지원을 위해 모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문제 3) '모금과 배분간 일정한 관계가 있다면 세부영역과 그 정도는 어떠한가?'에 대해 모금액이 1% 증가할 경우, 노인영역의 배분은 0.83%, 가족영역은 0.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몇 가지 연구 결과와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민간모금요인인 조직력은 모든 모델에서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원동원에 민간모금기관의 후원개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모금 담당 부서나 인력, 혹은 접직을 통해 모금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조직은 모금성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원자 개발을 위한 인력의 확보와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민간모금기관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조직요인 중 직원 수는 시설의 규모와 비례하므로 사실상 소규모 시설은 대규모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모금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시설의 인원이 적을지라도 모금 업무를 겸하는 인력이라도 배치한다면, 후원에 긍정적 결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환경요인은 모금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주어진 조건이지만 몇몇 모델에서는 유의한 요인으로 판명되었다. 서울에 위치하는 시설에 비해 시, 군 지역에 위치하는 시설의 민간모금 성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모금기관의 외적 환경은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이지만 지역특성에 대한 이해는 기관이 민간모금 전략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후원자를 모집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후원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후원자를 관리하는 활동은 후원자 증가에 중요한 요인이며, 새로운 후원자가 개발되고, 그들의 후원이 지속되어 모금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둘째, 민간모금동원 결정모형은  $\ln \hat{Y} = 11.16 + 0.39 \times \ln X_1 + 1.09 \times \ln X_2$  로 분석되었다.

모금액( $\hat{Y}$ )이 1% 증가하기 위해 종사자수( $X_1$ )는 0.39%, 모금전담인력수( $X_2$ )는 1.09% 각각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금기관들의 배분에 대한 분석에서는 12개 배분영역 중 2개 영역, 즉 노인 모델과 가족 모델의 설명력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금 및 후원금과 개인회비가 1% 증가할 경우, 배분액은 노인영역이 0.83% 증가, 가족영역이 0.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영역만 배분하는 기관들에서는 법정기부금 모집 경험여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배분액이 78배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 ‘해당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에 직접 배분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배분액이 노인모델은 0.16배로 작게, 가족모델은 13.8배 더 높게 나타났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법정기부금 단체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법인이나 단체가 많음을 방증하고 있다.

끝으로 배분과 관련된 분석결과가 주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분영역의 특성과 모집기관의 특성 분석에 있어 자료가 가지는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자료는 각 단체의 기부금과 후원금 특성들이 배분유형과 연계가 낮아 모금기관의 특성과 배분영역을 연결 시켜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음 본 조사내용은 모금과 배분간 관련된 이론을 기반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이 용이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앞으로 모금과 배분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모금과 배분이 별도인 우리의 구조를 반영한 조사표 개발이 요구된다.

고경환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OECD 작성기준의 SOCX 추계, 복지재정, 민간재원, 복지경영 등이다.  
(E-mail: khgho@kihasa.re.kr)

## 참고문헌

---

- 고경환, 장영식, 강지원, 서문희, 이규용, 김진옥, 등. (2013). 2012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경환, 조용복, 박을중, 강지원, 최성용. (2009). 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자발적 민간지출 수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경환. (2002). 한국 사회복지지출 추계: 1990~1999 순사회지출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권혁인, 주희엽, 나운빈. (2012). 국내 펀드레이징 확산을 위한 주요 고려요인과 전략과제. *대한경영학회지*, 25(8), pp.3145-3164.
- 김가을, 조상미. (2014). 한국 모금기관의 투명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웹 정보공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0(1), pp.27-52.
- 김미숙, 김은정. (2005).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자원 동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후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pp.5-40.
- 김영중. (2002). 민간 사회복지조직들의 재원이 서비스 전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0(1), pp.209-233.
- 김형식, 이영철, 신준섭. (2001).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동인.
- 노연희. (2006).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의 재정자원동원 효과성과 조직의 관리능력. *한국사회복지학*, 58(3), pp.5-26.
- 박태규, 손원익, 김진. (2011). 2011 모금기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재정학회.
- 신준섭, 최은미. (2004). 사회복지조직의 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시설의 후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2), pp.91-110.
- 이동영, 변은지. (2007).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의 재정자원동원 효과성과 조직의 관리능력. *한국사회복지학*, 59(2), pp.303-325.
- 정무성. (2000). 사회복지기관의 민간자원 동원전략. *한국지역사회복지학*, 8(1), pp.1-21.
- 최경구, 김욱. (2003). 한국의 기부문화와 모금활동의 역사와 현황. *계간사회복지*, 159(1), pp.6-88.
- 황성철. (2000). 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 자원동원 능력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1), pp.173-191.
- Ebaugh, H. R., Chafetz, J. S., & Pipes, P. (2005). Funding good works: Funding sources of faith based social service coalition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4, pp.448-472.



- Frumkin, P., & Kim, M. T. (2001). Strategic positioning and the financing of nonprofit organizations: Is efficiency reward in the contributions marketpla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3), pp.266-275.
- Grasty, W., & Sheinkopf, K. (1982). *The annual fund: How to grow perennial rewards from an annual campaign?* Los Angeles, C.A: The Grantmanship Center.
- Gronbjerg, K. (1993). *Understanding nonprofit funding: Managing revenues in social services and community development organizations.* San Francisco: Jossey-Bass.
- Hager, M., Rooney, P., & Pollak, T. (2002). How fundraising is carried out in US nonprofit organiz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7(4), pp.311-324.
- Hughes, P., & Luksetich, W. (2004). Nonprofit arts organizations: Do funding sources influence spending pattern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3, pp.203-220.
- Kotler, P. (1985). *Marketing for Nonprofit Organiza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Kotler, P., & Andreasen, A. R. (1987). *Strategic marketing for nonprofit organiza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Powell, W. W., & Minkoff, D. (2006). Nonprofit mission: Constancy, responsiveness, or deflection? In W. W. Powell & R. Steinberg (Eds.), *The nonprofit sector: A research handbook* (2nd). (pp.591-611).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tone, M. M., Hager, M. A., & Griffin, J. J. (2001).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funding environments: A study of population of United Way-Affiliated nonprofi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3), pp.276-289.
- Vazquez, R., Alvarez, L. I., & Santos, M. L. (2001). Market Orientation and social services in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36(9/10), pp.1022-1046.
- Venable, B. T., G. M. Rose., V. D. Vush., & F. W. Gilbert. (2005). The Role of Brand Personality in Charitable Giving: An Assess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33(3), pp.295-312.

## Development of a Private Resource Mobilization Model and Distribution Areas

Gho, Gyeonghoa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This study is aimed at providing basic information on fundraising strategies that private fundraising organizations can use in mobilizing social resources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how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region, organizational history, fundraising experts in charge, employees holding an additional post of fundraising, management of sponsor services and distribution are affecting private fundraising. The result of this study boils down to three findings. First, the organizational capability, one of factors affecting fundraising, turned out to be a significant variable in all models. This suggests that efforts for developing sponsorship of the private fundraising organizations are very important in resource mobilization. The community environment factor turned out to be a significant variable in several models, even though it can not be controlled. Facilities based in Seoul were found to have higher resource mobilization performance than those in outside Seoul. It affects sponsorship positively to utilize various methods for recruiting and retaining. The management of sponsor services is an important factor to increase the number of sponsors and the total amount of fundraising, since it makes develop the new sponsors and maintain sponsorship. Second, the resource mobilization determinant model was  $\ln \hat{Y} = 11.16 + 0.39 \times \ln X_1 + 1.09 \times \ln X_2$ . The total amount of fundraising( $\hat{Y}$ ) increased by 1% as the number of employees( $X_1$ ) increased by 0.39% and the number of fundraising experts in charge( $X_2$ ) by 1.09%, respectively. Third, with a 1%-increase in the total amount of fundraising(sponsorship and membership fees), the amount of distribution increased by 0.83% for elder services and by 0.40% in family services.

---

**Keywords:** Social Expenditure, Private Resource, Private Fundraising Organization, Resource Mobilization Determinant Model, Distribution Area